

현대 추상회화를 모티브로 한 패션디자인 연구

A study of fashion design with the motif on modern abstract painting

강희명⁺ · 김혜경

Kang, heemyung⁺ · Kim, hyekyung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박사⁺ ·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Abstract

For the progress of the fashion industry, we need to seek high quality and differentiation of the wears and one of the way is to develop design motif.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creative designs by selecting inspiring paintings from the abstract painting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nalyzing their artistic beauty and introducing their motif.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is composed of document study and manufacture. To design fashion that I researched papers regarding abstract painting and surveyed the concept, back ground, orgin, and development of abstract paintings.

Based on this study, I studied design cases which took motif from abstract painting.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seek of pure from which was prevalent in every area of Art Vivant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was present in Cubism, Futurism, Fauvisme, Purism, Neo-plasticism, Suprematism, Constructivism, and Expressionism. Each school has its abstract idea in various ways and it gave inspiration to creative fashion design. The color and simple forms of the early 20th abstract paintings was appropriate for functional dressing and modern art.

The design concept is casual femininity in luxurious mood. Motif of abstract paintings was expressed with design factors such as line, shape, and pattern and feminie sense was expressed with creativity and current trend.

The motif was taken from the painting of Hemri Matisse, Wassily Kandinsky, Robert Delaunay, Piet Mondrian, and Paul Klee who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abstract painting history in the early 20th century. I analyzed their color and shape and retranslated them into the motif of my works. As a result, the vivid color of abstract paintings was appropriate for modern sensibility and the shape of abstract paintings was appropriate for creating simplicity and functionality of modern art.

As fashion is evolved to reflect the current culture, I also suggest the potential of design as high value product in the 21st century by combining functionality and art into my work.

Key Words : abstract, modern art, inspiration, motif

I. 서론

1. 연구의 목적

추상회화는 어느 한 시대의 특정한 이즘(ism)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왔으며 지역과 시대를 초월하면서 때로는 특정 지역과 시대의 경향으로 부상되어 왔다. 새로운 표현으로서의 추상회화는 종래의 자연주의나 상징주의 미학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회화와는 다르게 인간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순수한 정신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추상회화는 양식의 변화와 논리적 표현과 함께 새로운 조형 원리와 언어를 만들게 하였고, 예술 세계 뿐 아니라 생활과 의식전반에 작용하고 있다. 20세기 추상회화의 형성과 전개는 현대 문명의 형성 과정 및 전개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미술과 사회, 문명의 관계를 흥미롭게 추적해 볼 수 있다.

현대 조형 예술은 다양한 시도와 창조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왔는데, 이러한 독창성의 한 방향으로 회화를 의상에 도입시켜 활력 있는 의상디자인의 모티브로 창출시키는 시도가 많은 사례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다. 오늘날 의상은 회화, 건축, 조각, 공예 등의 조형분야에 나타난 예술양식과 복식에 나타난 예술양식의 유사성을 제시함으로써 복식도 조형예술의 한 장르임을 밝힌 바 있다.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상회화의 변천과정과 현대 추상회화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시대정신과 개념을 이해하고, 추상회화를 작품의 모티브로 사용하여 의상디자인을 전개함으로써 독창성과 창의성이 있는 디자인을 제시하여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과 작품 제작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전개하였다. 이론적 배경은 복식사, 미술사, 문화사 등의 관련 서적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작품제작은 패션 정보 사이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하여 고찰한 자료를 토대로 추상적 모티브를 선정하여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 제작을 위한 디자인 모티브는 현대 추상회화 작품에서 이용하였으며 디자인적 요소를 트렌드에 접목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20세기 추상회화의 작가 중에서 추상회화 발전시기에 활동한 색과 형태의 추상성이 강한 마티스, 폴 클레, 와즐리 칸딘스키, 추상회화 발전과 확산에 공헌 한 피에트 몬드리안, 로버트 들로네를 선정하였다.

II. 추상회화의 이론적 고찰

본 연구에서 20세기 전반기라 함을 미국으로 건너가 ‘추상표현주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를 범위로 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추상회화의 개념을 정의내리고 추상회화의 모체가 되는 신인상주의부터 추상표현주의 형성 배경을 살펴본다.

1. 추상회화의 개념

추상(Abstract)이라는 영어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abs-trahere*로서,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대상의 전 구성요소 가운데서 어떤 것을 잘라내고, 밖으로 끌어내고, 또는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어떤 대상을 그 전체상에서 생략하고,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을 추상이라고 하며 이 과정의 작업을 추상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²⁾

추상은 ‘자연에서 추출하다’라는 언어적 의미만을 가지고 고찰한다면 먼 고대부터 존재해 왔다. 선사시대와 고대 이슬람 등의 유물들에서는 자연으로부터 추출하여 도식화한 장식적인 기호의 형태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에서 추출된 기호라 해서 전부 추상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는 없으며 알프레드 바(Alfred H.Barr)는 추상을 “자연의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율성을 지닌 존재가 되었을 때 진정한 ‘추상미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다.³⁾ 따라서 추상을 ‘자연으로부터 추출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자연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를 반영한 단어로 할 수 있다.

2. 추상회화의 기원 및 발전

후기 인상주의는 자연의 본질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폴 고갱(Paul Gauguin)은 자연 묘사 기능이 아닌 색채 자체로서의 존재의 자율성을 드러내고자 했고, 폴 세잔(Paul Cezanne)은 전통적인 명암법, 원근법을 배제하고 다시점(多時點)적인 시각으로 정물을 보았고 화면을 종합화하고 일치시키기 위해 그 공간을 논리적이고 질서 있게 구성하려고 하였다. 결국 모든 형태를 단순하게 나타내되 다양한 색채 조화를 통해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점이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유클리드의 원리, 원칙, 주장에 의거한 기하학적 구조를 찾게 하고, 객관적인 성격을 갖게 하는 것이다.⁴⁾ 이러한 세잔의 성향은 입체주의 화가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예술과 외부적 현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면적, 자율적, 비환영적인 구조로서 회화의 실체를 확립하는데 성공하였고 회화에서 실질적인 대상은 추상적 요소인 선, 평면, 색채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입체주의는 많은 젊은 화가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여러 양상으로 다양화되었고 전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입체주의를 추상으로 발전시키지 않았지만 다음 세대인 입체주의자들인 로버트 들로네(Robert Delaunay), 쿠프카(Frantisek Kupka) 등은 큐비즘을 통해 추상회화를 탐구하였다.

20세기 초 경향은 산 예술(*art vivant*)의 모든 분야 속에 거의 보편화되었으며, 이 순수 형태의 추구는 입체주의, 미래주의, 야수주의, 오르피즘, 순수주의, 신조형주의, 절대주의, 구성주의, 표현주의 등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 경향을 마르셀 브리옹(Marcel Brion)은 네 가지 큰 움직임으로 분류하고 있다. 과학주의, 주지주의, 낭만주의, 감각주의⁵⁾라는 20세기 초의 모든 미술운동은 각 유파별로 각기 추상화 정신을 지니고 있다.

20세기 전반기에 과학적인 분위기는 추상회화의 탄생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데, 칸딘스키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원자 분열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상대성 원리와 원자핵 분열 등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외형적 형태보다 본질적 구조와 법칙에 관심을 갖게 해주었으며, 칸딘스키는 내적 필연성을 찾는 자신의 탐구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의 작품 최초의 추상화 <그림 1>이 제작되었다.

1910년 -20년대는 추상회화 창조기, 1930년대에 이르면 추상회화는 보편적인 형태 언어가 되어 다각적인 추상미술의 응용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시기에는 몬드리안, 칸딘스키, 들로네 등이 활동하게 된다.

추상회화는 1910년의 활발한 탐구를 거쳐, 1920년대에 이르러 유럽 전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조형적 형태언어가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몬드리안이 ‘신조형주의(Neo-Plasticism)’를 주창하였고, 러시아에서는 말레비치가

절대 순수 감성을 표현하는 ‘절대주의(Suorematism)’를 창조하면서 추상미술의 대변자가 되었다.6) <그림 2>는 신조형주의 원칙과 일치되는 몬드리안 작품이다.

1913년 -1917년 사이에 모스크바에서는 유럽과는 전혀 다른 오히려 혁신적인 미술운동이 있어났는데, 절대주의와 구성주의이다. 구성주의는 기능주의적인 관점을 강조하였고, 타틀린(Vladmir Tatlin), 로드첸코(Alexander Rodchenko)가 주도하였다. 말레비치는 절대 순수 감성을 표현하는 ‘절대주의(Su

prematism)’를 주장하였고, 기능주의적인 관점을 강조한 타틀린(Vladmir Tatlin)과 로드첸코(Alexander Rodchenko)는 ‘구성주의(Constructivism)’를 주도하였다. 말레비치는 대상의 부재(不在)를 통해 추상의 순수한 존재를 드러내고자 사각형, 원 등의 가장 단순한 형태를 회화의 절대적인 요소로 선택하였다.7) <그림 3>은 「절대주의 구성」으로 말레비치 작품인데 원색 톤의 순수한 색채를 사용하여 사선 구성이 바탕의 흰색과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역동감을 자아낸다.

또한 제 2차 대전이 끝난 후 신진미술가들에 의해 새롭게 재생되어 발전되었다. 전후에 기하학적 추상회화는 이젤을 떠나 벽면을 향하면서 건축과 접합하기도 하여 미니멀 아트의 극단적인 물질로 환원되기도 한다.

1930년대의 파리 화단에서는 기하학적 추상회화의 형태와 정신에 대항하는 새로운 형태의 표현적 추상의 근원이 되는 초현실주의가 일어나면서 후안 미로(Joan Miro), 막스 에른스트(Max Ernst) 등이 개발한 ‘프로타주(frottage)’, 드리핑(dripping)’8) 등의 자동기술법(Automatism)’9)의 실험은 전후의 추상표현주의자들이 개척하는 추상의 새로운 형태의 모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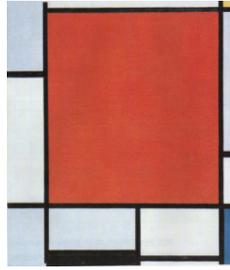
사회의 변화는 분명 예술의 변화를 초래한다. 추상미술도 20세기 시대의 변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탄생되었으며, 1930년대부터 기하학적 추상도 타성에 빠지게 된다. 형식적으로 관습화된 추상미술은 제 2차 대전의 엄청난 파괴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전쟁의 최대 승리자였던 미국에서 젊은 작가들은 유럽 미술의 흔적을 제거하고 미국적인 미술, 즉 ‘추상표현주의(Abtract Expressionism)’를 탄생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은 파리의 명성을 뉴욕으로 옮겨 오기에 충분하였으며 표현적 추상과 기하학적 추상은 서로 순서를 바뀌가며 발달해왔다.

<표 1> 추상회화의 변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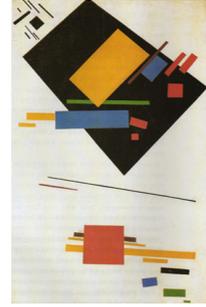
19세기 중반-1910 (추상회화의 기원)	1920 (추상회화의 발전과 확산)	1930-1940 (외형적 퇴보, 파리화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기인상주의 -고갱, 세잔 • 20세기 추상회화결실 -야수주의: 마티스 -큐비즘: 피카소, 브라크 • 입체주의의 발전 -로버트 들로네, 쿠프카, 레제 • 칸딘스키 표현적 추상탄생 -내적필연성 찾는 자신 탐구 • 청기사 -폴클레, 야블렌스키, 쿠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조형주의 -몬드리안 • 절대주의: 순수추상으로도약 -말레비치 • 구성주의: 기능주의관점 -예술과산업의 접목 -타틀린, 랩스너, 로드첸코 • 데스탈: 새로운양식 -몬드리안, 반되스머그 • 칸딘스키의 기하학적 추상 • 바우하우스 -다다, 비래주의, 아방가르드, 데스탈이 발전된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리화단이 기하학적 중심 -혁신적 현대 미술이 제재 • 30년대 -추상이 보편적 형태언어 -신진작가군 형성 -기하학적 회화전파 -구체미술(Art concret) :인간의 순수한 조형언어 • 초현실주의 -미로, 막스 에른스트 -프로타주, 드리핑(자동기술법) :추상 새로운 형태의 모태 • 전후 추상표현주의로 변모 발전



<그림1> Wassily Kandinsky 「최초의수채화」, 1910. 20세기미술사, 1999, p.34.



<그림2> Piet Mondrian 「빨강, 회청색, 노랑, 검정, 파랑의 구성」 1922. 20세기미술사, 1999, P.90.



<그림3> Kasimir Malevich 「절대주의의 구성」, 1915. 20세기미술사, 1999. P.124.

III. 추상회화를 응용한 현대디자인

본 절에서는 현대 추상회화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을 살펴보고, 디자이너들이 당대의 추상회화에서 모티브로 한 디자인 요소와 예술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1. 추상회화를 응용한 조형예술

입체파 화가인 피카소와 브라크, 후양 그리 등은 대상을 파괴하여 기하학적 구성요소로 해체하고, 여러 시점에서 본 이미지들을 하나의 단색 화면에 병치시킴으로써 대상의 본질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는 맞물린 평면들로 이루어진 구조였다.

20세기 초 조형예술을 디자인과 기하학적 형태와 구성을 중요시하였고, 기계미를 추구하는 미학이었다. 이 철학은 특히 20세기 초 큐비즘, 미래주의, 구성주의, 데 스틸 등의 미술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20세기 전반기의 디자이너들은 추상적인 형태를 만들어냈으며 대상은 기본 요소로 단순화되었으며 기계적인 요소를 비유한 장식 모티브가 응용되었다. 이러한 사례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는 게리트 리트벨트(Gerrit Thomas Rietveld)로, 그는 데 스틸 이미지가 강한 작업을 했던 건축가 겸 디자이너로서, 몬드리안 ‘조형 요소주의’ 원칙을 건축과 가구 디자인에 활용했는데, 이것은 모두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하여 표현한 선, 양감, 공간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었다. 예를 들면 1919년 작품인 ‘적, 청의 안락의자’에서 리트벨트는 의자를 구조에서 평면들이 서로 교차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는 의자 그 자체로서보다 의자의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을 조각적으로 환기시키는 기능을 한다<그림 4>.¹⁰⁾

데 스틸 운동은 현대 순수회화 영역 뿐 아니라 기능주의 건축과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등 폭넓은 분야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직방형의 조형가치를 강조한 기하학적 추상 조형 이론은 독일의 바우하우스에 소개되면서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조형원리에 영향을 주었다.

현대디자인 운동의 근원적 배경이 된 바우하우스 운동은 새로운 시대정신과 사회사상을 일상의 환경에서 조형화시킴으로써 20세기의 기하학적 순수 미술의 미학이 입방체, 장방형, 원형 등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바우하우스 양식을 출현시켜 유럽과 미국에서 디자인과 건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그림 5>. 또한 칸딘스키는 이

시기에 디자인의 영역 확대라는 측면에서 제품을 디자인했는데 <그림 6>은 칸딘스키의 커피 잔과 접시를 디자인하여 제품을 만든 것이다. 혁명 전의 러시아에서 카시미르 말레비치(Kasimir Malevich)가 입체파와 미래파를 근간으로 발전시킨 추상적인 미학을 새로운 디자인의 기반으로 제공하였다. 그의 추상적 모티브는 건축양식의 기초를 제공할 뿐 아니라 도자기와 옷감의 표면 등 수많은 실용품에 응용되었다. <그림 7>은 러시아 디자이너 포포바(Popova)의 텍스타일 디자인으로 파리의 오르피즘(Orphism)에서 파생된 모티브와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이 결합되어 있다.

로드첸코는 특히 그래픽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 양식에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추상성의 사용은 국제적으로 진보적인 그래픽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¹¹⁾ 그 외에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은 디자인 제품들이 나타났는데, <그림 8>은 1950년대 로제탈사에서 생산한 보다 장식적인 디자인의 하나로 이 제품의 형태는 프리츠 하이덴리히(Fritz Heidenrich)가 디자인했고, 표면 패턴은 초현실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클라우스 벤딕선(Klaus Bendixen)이 디자인했다. 또한 몬드리안은 건축,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등 조형예술에서 형태와 색상이 모티브로 많이 사용되었고 지금까지도 다양한 재구성으로 응용됨을 알 수 있다.

2. 추상회화를 모티브로 한 복식 디자인

20세기의 복식은 시대와 사회의 발전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는 미술양식과 함께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한 시대를 대변하는 미술양식은 같은 시대의 복식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복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특징 뿐 아니라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내면적 동기로서의 미술 양식을 이해해야 한다.¹²⁾

현대 의상은 예술과 의상의 접목이라는 새로운 시도와 연결되어 예술의 실용화 및 의상의 예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80년대에 들어와 현대 조형예술의 활발한 움직임과 함께 대중의 다양한 미의식이 새로운 의상의 태동을 자극하였으며 독창성 탐색의 한 방향으로 회화를 의상에 도입시켜 활력 있는 의상 디자인의 모티브로 창출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¹³⁾

본 절에서는 20세기 전반기 추상회화의 조형성이 당시 패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 그 양식이 현대에 어떤 방식으로 이어져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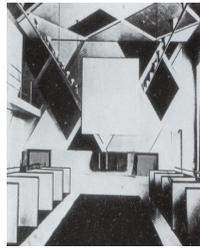
금세기 초의 대표적 디자이너 폴 뿌아레(Paul Poiret)는 처음으로 순수성을 지향한 사람으로 시대정신과 예술적 감정을 디자인에 명료하게 표현함으로써 ‘패션의 야수파’라 불리 우고 있다.¹⁴⁾ 뿌아레는 또한 야수주의와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며 아르데코 미술양식과 오리엔탈적인 무드, 특히 에르테(Erte)와 라울 뒤피(Raoul Dufy) 등의 화가와 관계를 맺으며 회화와 의 접목을 시도하고, 입체파 화가인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에게 그의 복식을 위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의뢰하여 전시회를 갖기도 했다. 화가로서 출발하여 회화를 복식, 직물디자인에 직접 도입시킨 소니아 들로네는 장식 미술에 뛰어난 여류 화가이다. 소니아는 인상주의의 색채분할주의, 야수주의 색채 표현 방법, 그리고 피카소의 입체주의의 요소가 혼합된 오르피즘(Orphism)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켜 색채 대비에 의한 추상적 표현을 추구하였다<그림 9>.

현대 패션에 나타나는 입체주의 영향은 크게 입체주의 회화의 직접적인 적용과 의복 구성에 있어서 입체화로 나눌 수 있다.

현대 디자이너들이 추상 경향을 나타내는 많은 화가들의 작품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마티스, 칸딘스키, 피카소, 브라크, 미로, 몬드리안 등 다양한 작품들을 시대에 맞는 시각으로 디자인하였



<그림4> Gerrit Rietveld, 「청과 적색의 의자」, 1979, 현대디자인의전개, 1990, P.74.



<그림 5> To Van Tongelro, 'Destij', Visions of Utopia, 1969



<그림6> Kandinsky, 1922, 20세기미술사, 1999, P.149.



<그림7> Popova의 텍스타일, 로고(logo) 1924, 디자인소스북, 1999, P.91.



<그림8> Fritz Heidenrich, 1950, 디자인소스 북, 1999, P.153.



<그림9> Sonia Delaunay, 1923, Sonia Delaunay, 1971, P.135.



<그림10> Matisse 이용, Yvesaint Laurent, 1980, Pierre Berge, 세계유명대표디자이너 이브생로랑, 2002, P.172.

고, 디자인적인 경향에 맞추어 색상과 형태, 문양 등에 응용되었다. <그림 10>은 마티스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문양과 색상이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응용되고 있다. 칸딘스키의 경우는 <그림 11-12>에서 볼 수 있듯이 기하학적 형태가 모티브로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응용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여러 디자이너의 작품에서 피카소와 브라크의 작품을 응용한 디자인이 보여지며, 일본 디자이너인 이세이 미야케의 경우 복식의 형태 자체에서 입체화를 시도, 하나의 조형물로서 형태를 갖추기도 한다. <그림 13>은 피카소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며, <그림 14-15>는 브라크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브라크를 응용한 디자인은 주로 복식의 형태 자체에서 입체화를 시도한 조형적인 작품이 많다.

초현실주의는 다양한 형태와 의미로 현대 복식에 표현되었는데,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물의 은유와 변형, 신체의 상징화, 위치와 용도 변형, 눈속임 기법, 복식의 자연 오브제화이다. 1930년대는 대량 실업과 경제 공황으로 인해 사람들은 좀 더 풍요로운 미래를 갈망했다. 이러한 기대의 색조와 대담성과 장식의 호화로움, 개성 있는 디자인 등으로 복식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은 엘야 스키야 파렐리(Elsa Schia-Parelli)였다고 볼 수 있다. 그녀의 독특한 핑크색인 쇼킹 핑크(Shocking Pink)로 나타났으며 또한 초현실주의 작가로 복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달리(Dali)와 공동 전시회에서 회화를 복식에 반영하였다.¹⁵⁾

<그림 16>은 스키야 파렐리의 작품이며 <그림 17>은 초현실주의 경향을 디자인에 응용한 사례이다. <그림 18>은 미로의 작품을 모티브 한 디자인 작품으로, 디자이너들이 주로 생물의 유기적인 곡선을 문양으로 많이 디자인하였다. <그림 19>는 몬드리안의 작품을 응용한 이브생 로랑의 디자인 작품으로, 몬드리안은 조형예술에서 많은 모티브로 이용되었으며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많이 이용되었다.



<그림 11> Junko Shimada, Collections 91-92 A/W



<그림 12> Kandinsky응용 Kansai Yamamoto, 디자인발상트레이닝, 1993, P.188.



<그림 13> Picasso 응용, Escada, 디자인발상트레이닝2, 1993, P.146.



<그림 14> Braque 응용, 패션디자인 발상트레이닝2, 1993, p.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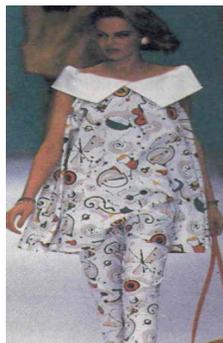
<그림 15> Braque 응용, 패션디자인 발상트레이닝, 1993, P.213.



<그림 16> Schia-parelli, 1938



<그림 17> Dali 응용, Larry Shox, Celestial Eye Suit,1985, "Fashionand Surrealism"



<그림 18> Miro 응용, 패션디자인발상트레이닝2, 1993, P.136.



<그림 19> Mondrain응용, Yves saint Laurent, "Laurent", 1965, 서양복식문화사, P.389.

V. 작품기획 및 제작

1. 작품기획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이후에 부상한 현대 추상적 모티브를 의상에 도입하여 디자인을 전개함으로 독창적이며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의상을 제작하려고 한다. 또한 최근 개인의 삶과 질을 중요시하는 라이프스타일과 마인드의 변화로 기능적이고 개성 연출을 할 수 있는 캐주얼웨어의 요구가 높아지는 욕구를 반영하여 이를 디자인의 형태와 소재에 반영하였다.

디자인의 소재는 현대인의 요구가 높아지고 기능성이 우수한 니트를 메인으로 하여 우븐과 믹스하여 창의성을 높였으며 니트의 게이지와 조직의 변화를 주어 다양성을 추구하였다.

소재와 기법 면에서는 인타샤를 이용한 작품 2, 핸드페인팅을 이용한 작품1, 자카르조직 1, 손뜨개를 이용한 작품 1 등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디자인의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게이지와 실의 합사를 다양하게 변형하여 작품의 포인트를 부각시키고 추상적 모티브를 도입하여 독창적이고 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의상을 제작하였다.

디자인의 색채는 모티브가 되는 작품의 색상에서 메인 컬러를 추출하여 각 톤의 변화를 주었으며 액센트 컬러를 강하여 사용하여 현대적인 감성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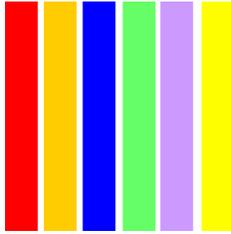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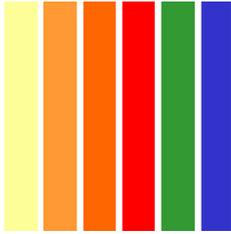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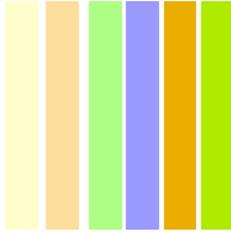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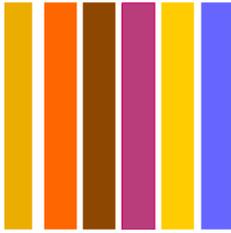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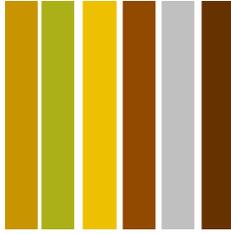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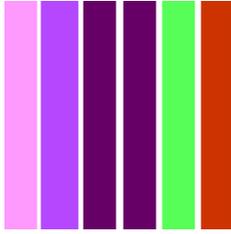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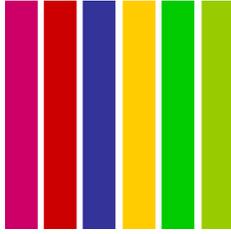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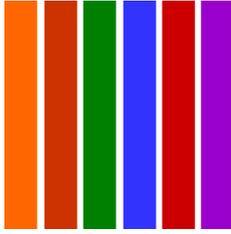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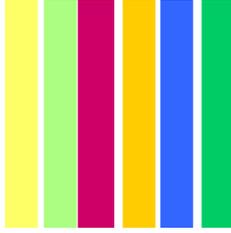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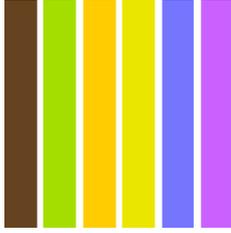
본 디자인의 컨셉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도시적이며 **Urban Femininity**이며 추상회화의 모티브를 디자인적 요소인 선, 형태, 문양 등으로 형상화하였고 여성적 감각을 트렌드에 맞춰 개성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디자인의 타겟은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여성으로 작품은 총 8점 제작하였다.

2. 작품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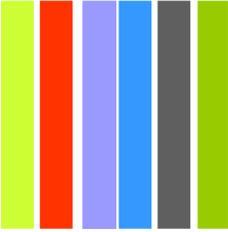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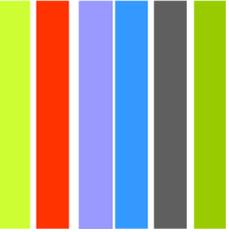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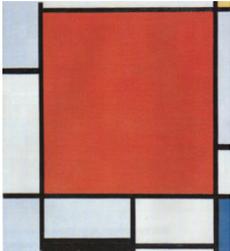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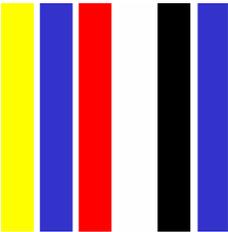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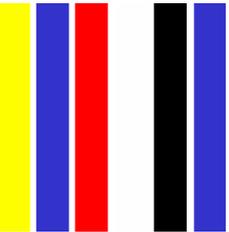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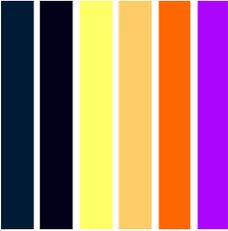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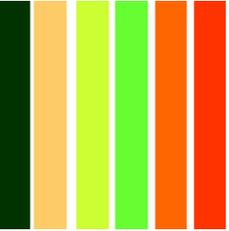
작품 1은 들로네 “블레리오에게 바침” 을 모티브로 하여 포토샵 작업을 통하여 문양을 재해석하였고 단순화된 문양을 강렬한 색상으로 재구성하였다.

작품 2는 칸딘스키의 작품 “최초의 수채화”를 모티브로 하였으며 색상을 페일(Pale)컬러 톤 다운 하였고, 편직물로 프린트하여 믹스 앤 매치하였다. 작품 3은 칸딘스키의 “앞 끝의 위에”를 모티브로하여 가장 포인트가 되는 원, 직선을 단순화하여 디자인하였다. 작품 4는 마티스의 작품 “Creole Woman Dancing”에서 모티브로 하여 단순화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재해석하였고, 피겨의 동일 포즈를 응용하여 생동감을 더했으며 색상의 대비를 이용하여 이를 재구성하여 원피스로 제작하였다. 작품 5는 마티스의 작품 “Sea - Beasts”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허리라인이하의 피겨는 생략에 의해 극대화시켰고, 화려한 색감과 파상형과 웨이브의 패턴을 배열하여 리듬감을 부여한 드레이핑 키톤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작품 6은 들로네의 작품 “끝없는 리듬”에서 모티브 하였다. 원작의 리듬감을 살려서 액티브한 기능적인 디자인을 하였다. 작품 7은 몬드리안 “빨강, 회청색, 노랑, 검정, 파랑의 구성”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신 조형주의에서 발전된 작품으로 세 가지 원색과 무채색을 이용하여 평면 안의 평면적 회화를 실현하기 위해 색상이 절제된 작가의 의도를 디자인 제작에 반영하여 선을 재해석하여 원피스와 카디건으로 디자인하였다. 작품 8은 폴 클레의 작품 “Revolution of the Viaduct”에서 모티브를 얻어 메인인 블루의 컬러를 그린계열로 변형하여 스포티한 원피스를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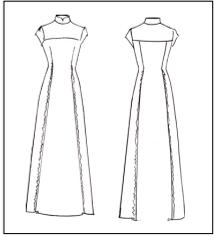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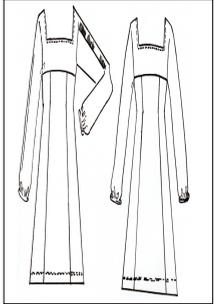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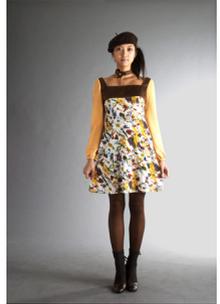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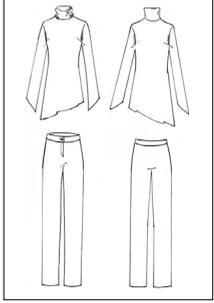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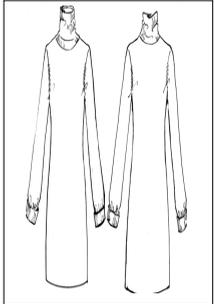
<표 2> 작품 모티브, 소재 및 기법, 주요 색상

작품 번호	작품 모티브	소재 및 기법	모티브 색상	작품색상
1		아크릴 70% bamboo 30% 포토샵작업으로 문양 재해석한 이브닝 드레스		
2		Wool 100 % 우븐 매치 몸판16, 소매14 게이지를 이용한 원피스		
3		Wool 100% 브클사 Moin 여러가지 사중혼합 Hand craft를 이용한 원피스와 팬츠		
4		아크릴 50% Wool 50% 자카드, 솜자수 작품모티브를 일러스트를 사용하여 재해석한 원피스		
5		상,하 wool 100% 랩 아크릴 70% Bamboo30% 상,하의 Plain조직 12게이지 랩 Plain 조직에 핸드페인팅 14게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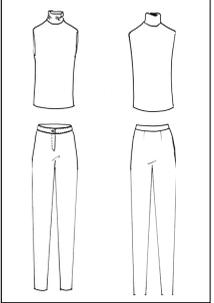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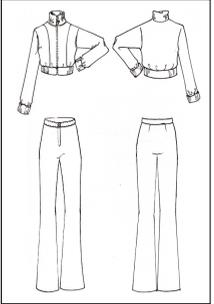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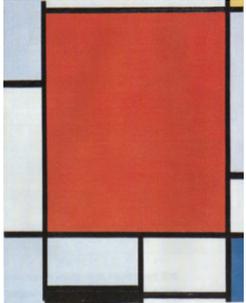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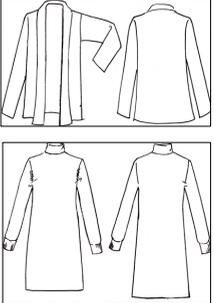
<표 2> 계속

작품 번호	작품 모티브	소재 및 기법	모티브 색상	작품색상
6		<p>wool 100% 자가드조직, 12게이지 기능성 원단과 니트를 이용한 점퍼와 바지</p>		
7		<p>wool 80% 레이온 20% 몬드리안 모티브를 이용한 니트원피스와 가디건</p>		
8		<p>wool 100%와 진 소재를 믹스한 스포티한 원피스</p>		

<표 3> 아이템도식화, 일러스트, 작품

작품 번호	작품 모티브 및 재해석	아이템 구성	작품 일러스트	작품
1				
2				
3				
4				

<표 3> 계속

작품 번호	작품 모티브	아이템 구성	작품 일러스트	작품
5				
6				
7				
8				

V. 결 론

20세기 전반기에 일어난 여러 미술 사조는 추상 회화의 창조와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추상적 정신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추상 회화는 20세기 인간 내면의 정신성과 순수성을 표출하고자 하는 대중적 미의식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추상 회화의 모티브는 다양한 표현 방식과 요소로서 복식 조형의 독창적인 디자인의 영감을 주었으며 색채와 형태의 단순성은 현대미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본 연구는 21세기 디자인의 많은 영감을 주는 추상 작품을 선정하여 예술적인 조형미를 분석하고, 이를 모티브로 하여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추상회화에 대한 문헌 연구, 작품 제작 부문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세기 전반기에 이르러 산 예술(Art Vivant)의 모든 분야에 거의 보편화된 순수 형태의 추구는 입체주의, 미래주의, 아수주의, 순수주의, 신 조형주의, 절대주의, 구성주의, 표현주의 등에 나타났고, 각 유파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상적인 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이념은 복식 조형의 독창적 디자인의 영감을 주었고, 20세기 전반기 추상회화는 현대 패션의 색상과 문양, 형태의 모티브를 제공하기에 적합하였고, 트렌드에 부합하였다.

작품 기획 및 제작 부문은 총 8점을 제작하였고, 디자인 컨셉은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도시적 페미니티(Urban Femininity)이며 추상회화의 모티브를 현대적 미의식에 맞추어 디자인하였고, 독창적으로 표현하였다. 작품에서는 선호도가 높아진 니트와 우븐을 믹스하였고, 소재의 장점인 유연성과 무정형의 비구축적 디자인, 현대 패션디자인의 추세인 소재의 믹스엔 매치와 고급화를 통해 독창적인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추상회화의 모티브를 연구하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하여 창의적인 디자인을 제안하였으며, 고부가가치의 패션상품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니트와 우븐의 믹스, 새로운 추상회화의 이미지를 믹스하여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안하여 영역을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Marilyn J. Horn, Lois M (1981). The Second skin,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p.340.
- 2) 오광수 (1988). 추상미술의 이해, 서울: 일지사, p.46.
- 3) Alfred H Barr (1993). Cubism and Abstract Art, New York: The Museum of Modern Art, p.11.
- 4) 임영방 (1979). 현대미술의 이해,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99.
- 5) Marcel Brion (1952). Art Abstrait, Paris: Albin Michel, p.84.
- 6) 김현화 (1999). 추상미술의 이해, 서울: 한길아트, p.77.
- 7) 위의 책, p.120.
- 8) 트리펑 : 화폭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격렬한 액션이 가는 대로 물감을 흘뿌림으로써 데생과 채색이 하나로 융합된 화폭을 잘라내어 틀에 끼움으로 순수한 회화면이 화면전체를 뒤덮은 이른바 ‘올 오버’기법을 말한다.
- 9) 자동기술법 : 초현실주의 작가들이 사용한 기법으로 무의식적 자동기법, 자동기술법은 초현실주의 미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20세기 미술 및 문학 등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즉, 모든 습관적 기법이나 고정관념, 이성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전혀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손 가는 대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 10) 페니스파크 외 5인, 한국미술연구소 역 (2000). 디자인소스북, 서울: 시공사, p.88.
- 11) 위의 책, p.91.
- 12) 정홍숙 (1986). 근대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21.
- 13) 이은영 (1989). 회화를 이용한 현대의상 디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3.
- 14) 장문호 (1977). 복식미학, 서울: 세운문화사, p.43.
- 15) 공경희 (1987). 20세기 미술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45.